

원자력계의 위상 제고와 해외 진출 협조

한국원자력학회

지난 한해를 돌아해보면 고유가 위기,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 그리고 가계 부채 증가 등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지만, 술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년간을 끌어오던 미결 국책 사업인 방사성 폐기물 부지가 주민 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되는 기쁜 소식도 있었다.

올해에도 항상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고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해 간다는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고유가와 공급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원자력 사업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로한 시대적 조류에 걸맞게 우리 원자력학회도 배전의 노력으로 학계와 연구계와 산업계를 아우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가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며 국가 경제 발전과



회원들의 오랜 바램이던 학회회관 건립 사업이 금년부터 추진된다. 회관 건립 지역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이미 수렴한 바 있으며,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회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에 기여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학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원자력과 원자력 과학기술자를 믿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한다.

2006년도 주요 사업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간행물 발간 사업, 시상 사업, 장학 사업, 학회지(NET) SCI 등재 사업, 원자력 기술·정책 개발 사업,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학회 회관 건립



한국원자력학회는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 간행물 발간 사업, 시상 사업, 장학 사업, 학회지(NET) SCI 등재 사업, 원자력 기술·정책 개발 사업,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학회 회관 건립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① 간행물 발간·시상 사업

간행물 발간 사업으로는 격월간 학회지 발간, 학회 소식지 「뉴토피아」 발간, 연차보고서, 회원 명부를 발간할 계획이다.

예년과 같이 해당 학술 부문에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원자력 기술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선정하여 학술상을 시상하고, 춘·추계 학술 발표회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 3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학술 발표 우수 논문상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② 장학 사업

원자력 분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학회는 매년 각 대학의 원자력과 학생중에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올해에도 6개 대학에 총 2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밖에도 수시로 노물리 및 수치 해석 관련 해외 학술대회의 논문 발

표 예정자를 대상으로 PHYSOR 장학생도 선정하여 논문 발표를 위한 해외 출장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③ 학회지의 SCI 등재 사업

학회 내부적으로는 현재 역점사업으로 학회지의 SCI 등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학회지의 SCI 등재를 위하여 학회지 논문 투고 및 심사 전산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초청 논문을 포함하는 특집 논문을 발간하고, 이를 세계적인 유관 기관 130곳에 배포하며, Advisory Committee Meeting 개최, Advisory Committee Member, Reviewer, SCI 관련 전문가 등 세미나 개최, 학술지 발전 기여상 시상, 논문 영어 교정, 외국인 편집위원 영입, 국제 학술대회 특별 논문집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④ 원자력 정책·기술 개발 사업

학술 활동의 질적, 양적 제고를 위하여 10개 연구부회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아갈 것이다.

학회 부설 원자력기술·정책 연구소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원자력 기술·정책 개발 연구 및 자문을 활성화함으로써 정부와 산업계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중에 있다.

국제 원자력 기술 교류와 협력 활성화 및 네트워크, 산·학·연간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학회 내 청년지부 활동 지원 강화 및 타원자력 관련 학회와의 연계 협력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쓸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위상을 높이고 원자력 산업계의 해외 진출을 크게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원자력학회는 금년으로 창립 37주년을 맞이한다. 이제는 양적, 질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으며, 2천여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원자력에 관한 학술 발전과 산·학·연 협력 증진의 장인 춘계학술발표회가 5월 말경 강촌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 발표회는 10월 말 경 개최할 예정이다.

올 한 해 과학기술인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바라며,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